

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 분석 중심

유찬희·김미복·박준기·이두영

요 약

농가를 경영성과 지표인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

- 총수입이 당해연도 전체 농가 중위값보다 크면/작으면 고수입(H)/저수입(L)로 분류하였고, 농가경제잉여가 0보다 크면/작으면 흑자(B)/적자(R)로 분류
- 2008년 대비 2018년에 고수입/흑자 농가(LB) 및 저수입/적자 농가(LR) 비중 증가

2008년 대비 2018년에 저수입 농가에서 일반농 비중은 감소, 고수입 농가에서는 전문농 비중이 증가

- 저수입 농가 중 일반농 비중이 감소하고 자급농 비중이 증가한 것은 영농 활동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
- 고수입 농가는 젊은 경영주 비중이 높고, 가구 내 경제 활동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농외소득 확보 가능
- 일반농이 자급농이나 전문농으로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소득 안전망 확충, 경영 안정 및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차별성 확보가 중요

2008년 대비 2018년에 규모별 농가 유형 간 경제적 성과는 다르게 실현

- 저수입 농가 중에는 적자 농가 비중이 51.8%에서 58.5%로 늘었고, 농가경제잉여 적자 규모도 42.7% 증가
- 고수입 농가 중에는 흑자 농가 비중이 69.7%에서 75.4%로 늘었고, 흑자 농가와 적자 농가 모두 경제적 성과 개선

저수입 농가에 실효성 있는 농업 경영 안정 정책 필요

- 저수입/흑자 농가(LB)의 흑자 폭이 변동이 없는 반면, 저수입/적자 농가(LR)의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되어 저수입 농가 특성을 반영한 경영안정정책 필요
- 저수입/흑자 농가(LB)의 주 수입원은 이전소득이지만, 농업수입 크기에 따라 농가경영 흑자·적자에 영향

고수입 농가의 수입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촌형 일자리 정책과 농업 경영 안정 등 양방향에서 접근 필요

- 고수입 농가(H)의 주 수입원은 농업수입이지만, 농외수입도 저수입 농가(L)보다 5배 이상 많은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농외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
- 농업수입 크기에 따라 고수입 농가의 흑자·적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수급안정, 경영비 절감 등 경영안정정책이 중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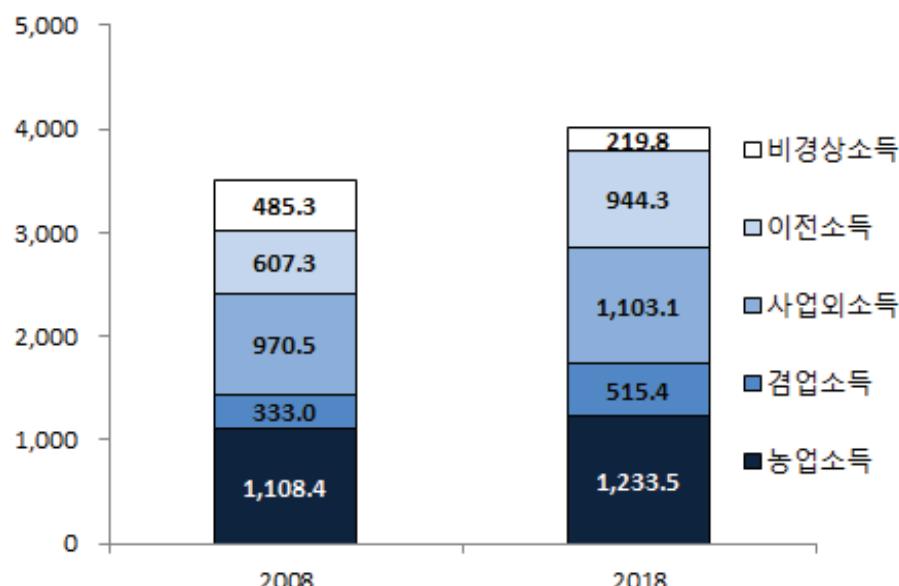
농가소득 변화: 2008년과 2018년 비교¹⁾

2018년 실질 농가소득은 2008년보다 511만 원(14.6%) 증가(그림 1)

- 2008년 대비 2018년에 평균 농외소득(315만 원, 24.2%)과 이전소득(337만 원, 55.5%)이 크게 증가하였음. 농업소득도 평균 125만 원(11.3%) 늘어났음.²⁾
- 같은 기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31.6% → 30.7%)과 농외소득(37.2% → 40.3%)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전소득 비중은 17.3%에서 23.5%로 증가하였음. 이전소득 증가는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등이 원인으로 판단됨.

〈그림 1〉 농가소득 및 원천별 소득 추이: 2008, 2018년

단위: 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1)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값은 GDP 디플레이터(2015=100)로 실질화하였음.

2)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계임. 농업소득은 “농업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농가의 당해 연도 농업 생산 활동의 최종 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 보수”를 뜻함. 농외소득은 겸업소득(농가가 농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사업외소득(노임, 급료, 임대료 등 농가가 사업 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의 합계임.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함(통계청, 『통계 설명 자료』).

02

유형별 농가경제 실태와 특징

2.1. 농가 유형화

농가의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³⁾를 기준으로 농가를 4개 유형으로 구분⁴⁾

농가의 당해 연도 성과를 나타내는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를 농가 유형화 지표로 활용⁵⁾

- 농가는 영농 활동 외에도 다양한 소득 창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농가의 전반적인 경영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로 ‘농가의 수익 창출 활동 전반에서 발생한 총수입’(이하 총수입)⁶⁾을 선택하였음.
- 개별 농가의 총수입이 비슷하더라도 경제 활동 양상은 다를 수 있고, 그 결과 농가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차이가 날 수 있음. 따라서 농가경제 활동 결과의 흑자·적자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인 농가경제 잉여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음.

농가 유형 구분 기준은 특정 연도 개별 농가의 총수입이 당해 연도 전체 표본 농가의 총수입 중위값보다 많은지 여부에 따라 고수입(H)/저수입(L)으로 구분, 농가경제잉여가 0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흑자(B)/적자(R)로 구분 함. 이 기준을 따라 농가를 4개 유형으로 분류<표 1>

- 2008년 대비 2018년에 고수입 농가는 흑자(HB), 저수입 농가는 적자(LR) 비중이 늘어났음<표 2>.

<표 1> 농가 유형 분류

구분	흑자(B) (농가경제잉여 ≥ 0)	적자(R) (농가경제잉여 < 0)
저수입(L) (총수입 < 표본 농가 중위 총수입)	유형 1 (저수입/흑자, LB)	유형 2 (저수입/적자, LR)
고수입(H) (총수입 ≥ 표본 농가 중위 총수입)	유형 3 (고수입/흑자, HB)	유형 4 (고수입/적자, HR)

자료: 저자 작성.

<표 2> 농가 유형별 분포: 2008, 2018년

구분	저수입/흑자(LB)	저수입/적자(LR)	고수입/흑자(HB)	고수입/적자(HR)	합계
2008년	643 (24.3%)	678 (25.7%)	921 (34.8%)	401 (15.2%)	2,643 (100.0%)
2018년	622 (20.7%)	878 (29.3%)	1,131 (37.7%)	369 (12.3%)	3,000 (100.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3) 농가경제잉여는 농가 경제의 흑자 또는 적자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농가소득에서 소비 및 비소비 지출을 뺀 값임.

4)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근거는 유찬희·김창호·김윤진(2019)을 참고하기 바람.

5) 기존 농가유형 기준은 주로 연령 및 영농 규모를 활용하였음.

6) 농업수입, 농외수입(=경업수입+사업외수입),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계로 계산하였음. 이전 및 비경상소득을 포함시킨 이유는 농가경제잉여에 포함된 항목을 반영하여 지표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임.

2.2. 유형별 농가의 특성

저수입 농가(L)는 일반농, 고수입 농가(H)는 전문농 위주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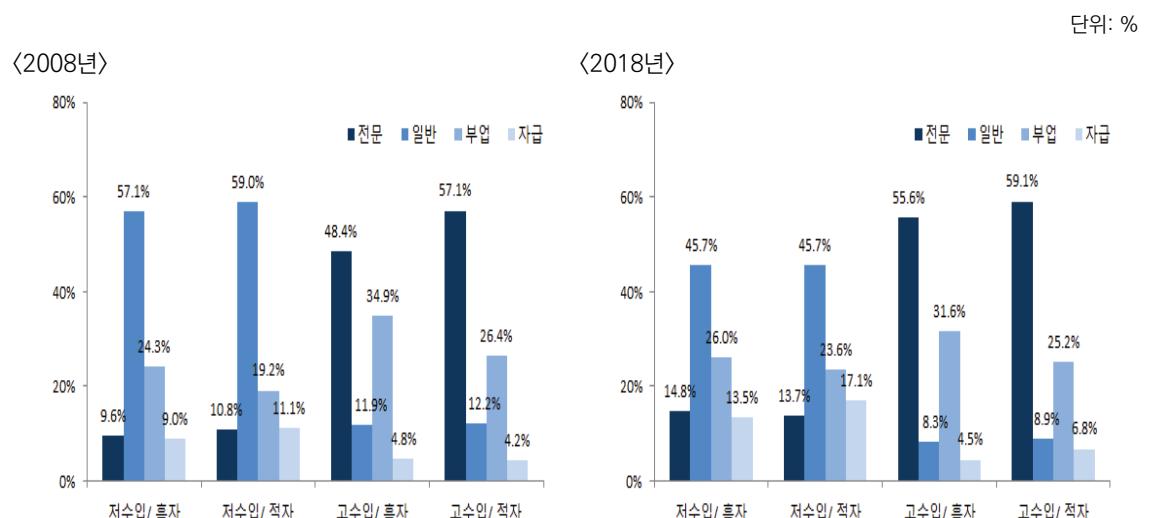
2018년 저수입 농가 중 일반농 비중은 45.7%로 높지만 그 비중은 감소〈그림 2〉

- 2008~2018년 저수입 농가 중 일반농 비중은 58.1%에서 45.7%로 12.4%p 감소하였고, 자급농과 전문농 비중은 각각 5.5%p, 3.9%p 증가하였음. 농가 평균에 가까운⁸⁾ 일반농이 줄고 전문화된 농가나 자급적 저수입 농가가 늘고 있음.
- 자급농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고령농의 영농 은퇴 또는 취미농 증가라고 판단됨.

2018년 고수입 농가는 전문농 비중이 56.5%로 가장 높았고, 그 비중도 증가〈그림 2〉

- 2008~2018년 고수입 농가 중 전문농 비중은 51.1%에서 56.5%로 5.4%p 늘었음. 일반농 비중은 3.6%p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부 농가는 전문농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유형별 농가의 경영 형태 비중 변화: 2008, 2018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7) 주업(전문, 일반)·부업·자급농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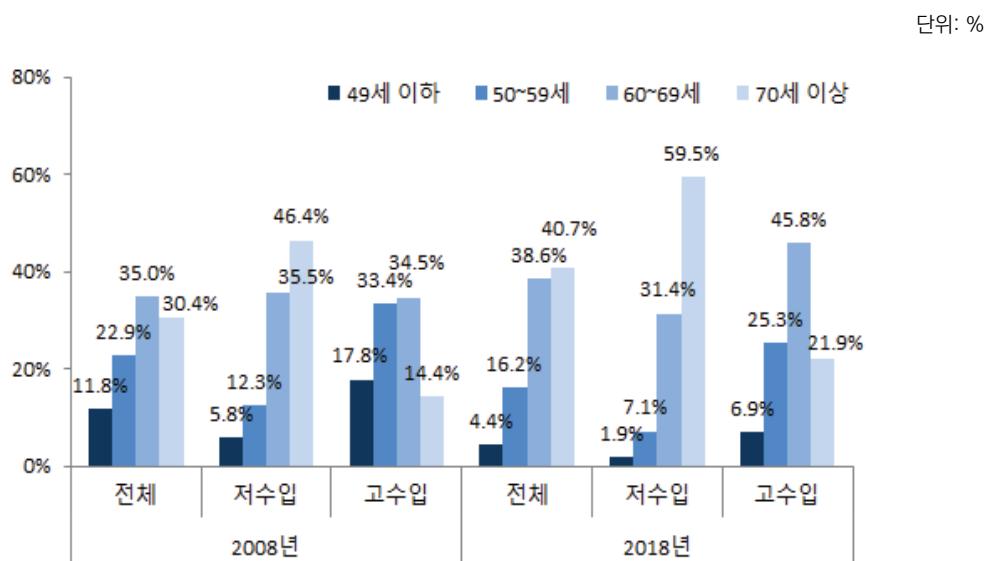
- 주업농: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 주업농 중 “경지 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 일반농: “경지 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 부업농: “경지 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 8) 2018년 전체 표본 농가 농업수입 중위값은 1,517만 원, 표준 영농 규모는 1.2ha였음. 일반농 정의인 “경지 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를 따르면 영농 규모 및 농가경제 수준이 전체 중위값과 비슷함.

저수입 농가(L)의 고령화가 고수입 농가(H)보다 빠르게 진행<그림 3>

-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이하 고령 농가) 비중은 2008년 30.4%에서 2018년 40.7%로 높아졌음.⁹⁾
- 저수입 농가 중 고령 농가 비중은 2008년 46.4%에서 2018년 59.5%로 높아졌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가는 영농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 전환을 하고, 은퇴 후 귀촌하는 인구도 증가하면서 저수입 농가 중 일반농이 자급농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확대됨<그림 2>.
- 같은 기간 고수입 농가 중 고령 농가 비중은 14.4%에서 21.9%로 증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고령화가 진행됨.

<그림 3> 유형별 경영주 연령대 분포 변화: 2008, 2018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고수입 농가(H)의 농외수입·농외소득이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가구 내 경제 활동 참여자 수 차이

- 2018년 고수입 농가의 평균 농외수입은 3,675만 원으로 저수입 농가(691만 원)의 5.3배였음. 고수입 농가의 평균 농외소득은 2,277만 원으로 저수입 농가(616만 원)의 3.7배였음.
- 고수입 농가는 가구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평균 연령도 젊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 활동 참여로 농외소득을 많이 확보하고 있음<그림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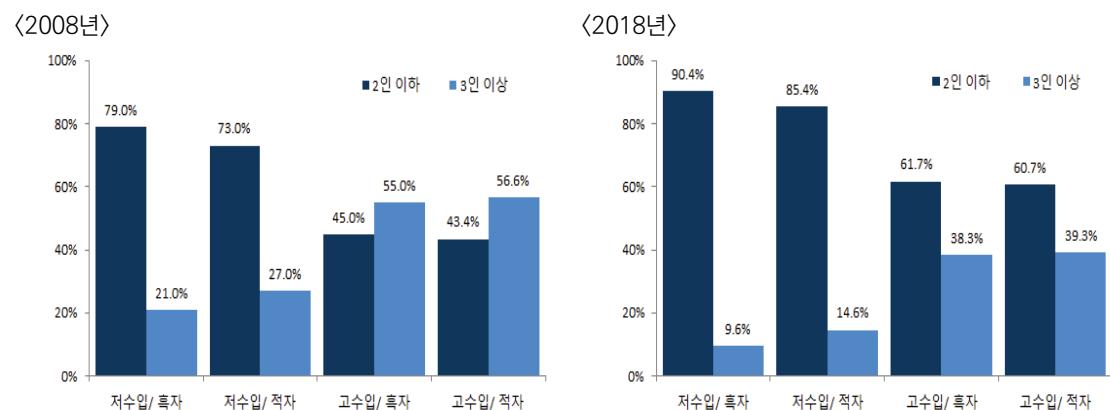
* 2018년 저수입 농가 중 10.7%만 경영주 이외 가구원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였고, 가구당 참여 인원 수는 1.06명이었음. 고수입 농가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호당 인원은 30.4%, 1.23명이었음<그림 5>.

9) 2018년 『농가경제조사』에서는 경영주 연령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경영주 연령 구간을 비교하였음.

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 분석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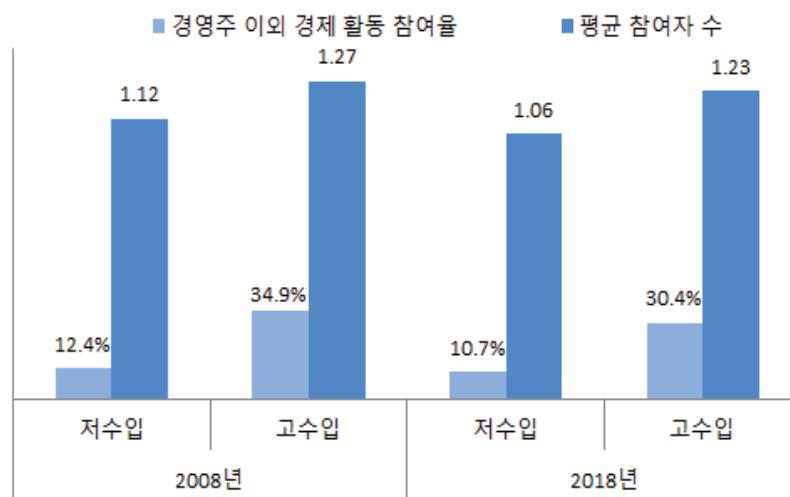
- 고령화로 평균 가구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다수의 저수입 농가는 앞으로도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저수입 농가 중 '가구원 수 2명 이하 농가' (이하 2인 이하 농가) 비중은 2008년 75.9%에서 2018년 87.5%로 늘어났음. 같은 기간 고수입 농가 중 2인 이하 농가 비중은 44.5%에서 61.5%로 증가하였음.¹⁰⁾

〈그림 4〉 유형별 농가의 가구원 수 비중 변화: 2008, 2018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그림 5〉 유형별 농가의 경제 활동률 및 평균 참여자 수: 2008, 2018년



주 1) 경영주를 제외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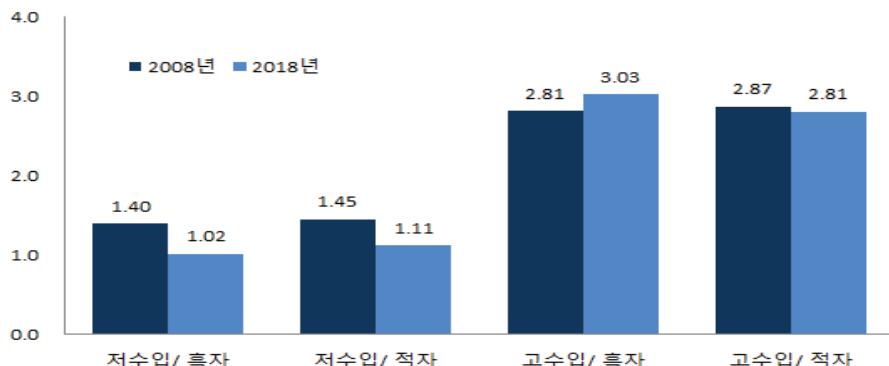
2) 경제 활동 참여자 수는 6월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10) 2008년에는 1인 농가를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고, 2018년에는 100호를 포함시켰음. 표본 선정 방법 때문에 차이가 일부 발생했음.

〈그림 6〉 유형별 농가의 표준 영농 규모 변화: 2008, 2018년

단위: ha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영농 규모 양극화 진행: 저수입 농가(L)의 표준 영농 규모는 감소, 고수입 농가(H)의 표준 영농 규모는 증가

- 저수입 농가와 고수입 농가 간 표준 영농 규모¹¹⁾ 비교 결과, 농가 간 영농 규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그림 6>. 저수입 농가의 평균 표준 영농 규모는 2008년 1.4ha에서 2018년 1.1ha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고수입 농가의 평균 표준 영농 규모는 2.8ha에서 3.0ha로 늘어났음.

* 저수입/흑자 농가 중 1ha 미만 농가 비중은 2008년 48.7%에서 2018년 67.4%로 늘어났음.

* 저수입/적자 농가 중 1ha 미만 농가 비중은 2008년 49.4%에서 2018년 63.4%로 늘어났음.

* 고수입/흑자 농가 중 3ha 이상 농가 비중은 2008년 30.6%, 2018년 30.9%로 비슷함.

* 고수입/적자 농가 중 3ha 이상 농가 비중은 2008년 33.4%, 2018년 33.1%이었음.

- 2008~2018년 저수입 농가 표준 영농 규모는 24.6% 감소하였으나<그림 6>, 평균 총수입은 2,665만 원에서 2,595만 원으로 2.6% 줄어들었음. 저수입 농가는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표준 영농 규모가 감소하여 영농 규모가 흑자·적자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을 반증함. 오히려 농외수입 규모가 저수입 농가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저수입 농가 평균 농외수입은 2008년 658만 원에서 2018년 691만 원으로 5.0% 증가한 반면, 평균 농업수입은 1,215만 원에서 992만 원으로 18.4% 감소하였음.

- 고수입 농가는 표준 영농 규모에 따라 경영 성과가 달라짐. 고수입/흑자 농가의 표준 영농 규모는 10년 전보다 커져 경영 성과를 높기 위해서 요구되는 영농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진 것을 반영함<그림 6>.

* 고수입 농가 평균 농업수입은 2008년 5,449만 원에서 2018년 8,134만 원으로 49.3% 증가한 반면, 평균 농외수입은 2,893만 원에서 3,675만 원으로 27.0% 증가하였음.

11) 표준 영농 규모는 영농형태별로 농업 자본 관련 유형 자산을 경지 규모에 반영하여 다양한 영농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임(김미복·오내원·황희식 2016). 경지면적+(농업용 고정자산/당해 평균 농지 가격)으로 계산하여 산출함(최양부·박성재·오내원 1983).

2.3. 농가 유형별 경제적 성과

2008년 대비 2018년 저수입/흑자 농가(LB) 비중은 감소한 반면 저수입/적자 농가(LR) 비중은 증가

2018년 저수입/흑자 농가 비중은 20.7%임. 2008년 대비 총수입은 큰 변화가 없고, 이전소득에 주로 의존

- 평균 총수입은 2,877만 원에서 3,050만 원으로 6.0% 증가하였고, 농가소득과 농가경제잉여도 각각 10.6%, 9.7% 증가하였음(그림 7).
- 2018년 기준으로 이전소득(농가소득 중 38.3%)과 농외소득(30.5%) 의존도가 높음.

2018년 저수입/적자 농가 비중은 29.3%로 증가하고, 평균 농가소득이 1,290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농가경제잉여 적자 폭이 확대

- 평균 총수입은 2,463만 원에서 2,272만 원으로 7.8% 감소하였음. 농가소득과 농가경제잉여도 각각 14.5%, 42.7% 감소하였음.
- 이전소득(농가소득 중 50.2%)이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이었고, 농외소득 비중도 41.3%임.

2008년 대비 2018년에 고수입/흑자 농가(HB)와 고수입/적자(농가HR) 모두 성과지표 개선

2018년 고수입/흑자(HB) 농가는 비중이 가장 큰(37.7%) 집단으로 중위 총수입 이상 경영 규모를 유지하는 농가 중 75.4%가 흑자를 기록(표 2)

- 2008~2018년 고수입/흑자 농가(HB)의 평균 총수입은 1억 221만 원에서 1억 4,025만 원으로 37.2% 증가하였고, 농가소득과 농가경제잉여도 각각 20.7%, 37.8% 증가하였음(그림 7).
- 2018년 고수입/흑자 농가(HB)의 소득 원천별 비중은 농업소득(농가소득 중 47.7%), 농외소득(33.5%), 이전소득(14.7%) 순으로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았음.

고수입/적자 농가(HR)는 비중이 가장 작은 집단(12.3%)으로 규모화된 농가는 적자 발생농가 적음. 매출 규모는 증가하였고 농가경제잉여 적자 폭도 감소하여 성과지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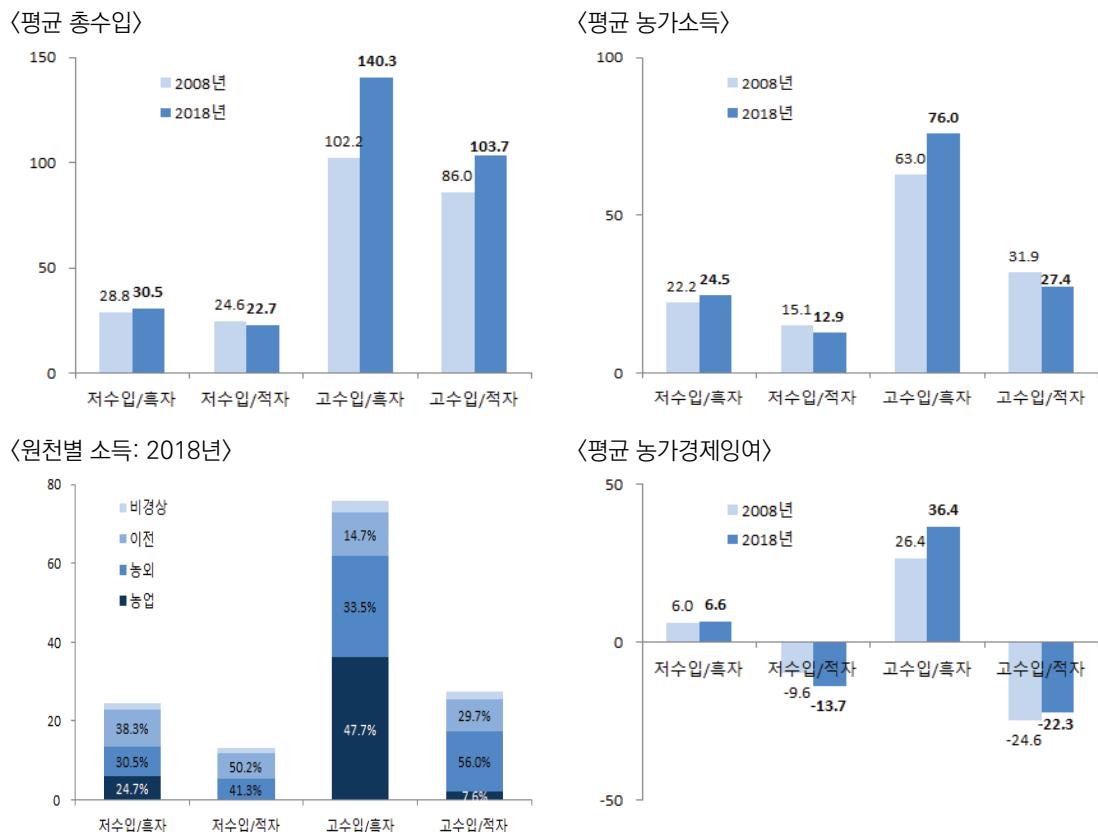
- 2008년 대비 2018년에 고수입/적자 농가(HR)의 평균 총수입은 8,597만 원에서 1억 372만 원으로 20.6% 증가하여 10년 전에 비해 농가 경영 규모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같은 기간 농가소득은 14.1% 줄어들었고, 농가경제잉여는 9.3% 감소하였음.
- 2018년 고수입/적자 농가(HR) 평균 총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농가소득은 감소하였음. 원인 중 하나는 고수입/적자 농가(HR) 평균 경영비가 5,920만 원에 달했기 때문임. 고수입/흑자 농가(HB) 평균 경영비 2,769만 원과 비교하면 매출액 대비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쳤음. 가계 지출 규모도 평균 4,926

만 원으로 고수입/흑자 농가(HB, 3,922만 원)보다 많았음.

- 고수입/적자 농가(HR)는 농업소득에서 이미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농외소득(농가소득 중 56.0%)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고, 이전소득(29.7%)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7〉 유형별 농가의 총수입, 농가소득, 농가경제잉여 변화: 2008, 2018년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고수입 농가(H)보다 저수입 농가(L)의 경제적 성과의 변동 폭이 큰 경영불안정을 보임(그림 7).

고수입 농가일수록 농가경제잉여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성이 증가(표 2)

- 고수입 농가 중 흑자 농가 비중은 2008년 69.7%에서 2018년 75.4%로 증가하였음. 반면 저수입 농가 중 흑자 농가 비중은 2008년 48.7%에서 2018년 41.5%로 감소하였음.
- 2008년 대비 2018년에 저수입 농가(L)의 농가소득은 소폭 변동하였으나, 고수입/흑자(HB) 농가의 농가소득은 평균 1,302만 원 늘어났음.

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 분석 중심

경영 규모에 따라 적자·흑자 폭을 비교한 결과, 고수입 농가(H)의 흑자 폭은 확대된 반면 적자 폭은 감소하여 경영안정성이 확대

- 고수입 농가는 경영 성과가 좋았을 때 흑자 폭이 커졌으나, 경영이 부진해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는 않았음. 이는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 경영안정 정책의 효과로 판단됨.
- 반면 저수입 농가는 경영 성과가 좋았어도 흑자 폭이 작았음. 경영이 부진하면 적자 폭이 커지고, 10년 전에 비해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주로 면적 단위로 지원되는 농업 경영 안정 정책의 특성 때문에 저수입 농가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2008년 대비 2018년에 논벼·축산 부문 경영 성과 구조 변화 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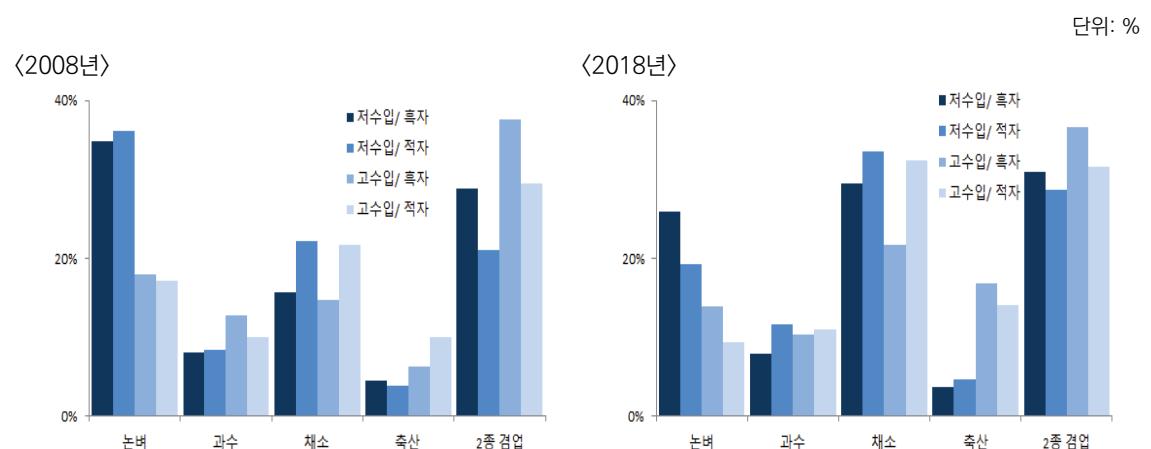
논벼 농가 중 고수입/적자 농가 비중이 36.1%에서 19.2%로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그림 8)

- 2017년 발동한 쌀변동직불금이 2018년에 지급되었고, 쌀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축산 농가 중 고수입 농가 비중은 16.3%에서 30.9%로 증가하는 등 규모화 현상이 뚜렷(그림 8)

- 고수입/흑자·적자 농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음. 규모화·전문화된 농가가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었지만, 가축질병 등 경영 리스크 역시 늘어난 점이 원인이라고 판단됨.

〈그림 8〉 영농 형태별 유형 분포 변화: 2008, 2018년



주: 영농 형태 중 화훼, 전작, 특작, 기타는 표시하지 않았음.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03

시사점

실질 농가소득은 2008년 대비 2018년에 14.6% 증가했고, 이전소득 증가가 기여

- 농가 인구 고령화와 가구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기초연금 확대 등 이전소득 증가의 영향이 컸음.
- 농업 수익성 제고와 함께 고령 농가 노후소득 안전망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수입 농가(L)는 일반농 비중이 줄고, 고수입 농가(H)는 전문농 비중이 늘어나 정책 차별성 확보가 중요

- 최근 고령자와 은퇴자가 증가하면서 저수입 농가 중 자급농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지원 대상과 범위 등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고수입 농가 중 전문농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경영 안정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지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수입 농가(L)에 실효성 있는 농업 경영 안정 및 소득지원 정책 검토 필요

- 농가경제잉여 분석 결과, 적자 발생 시 저수입 농가(L)가 경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었음. 이는 농작물 재해보험 등 주요 경영 안정 지원 제도가 주로 면적 단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각종 정책 보험 확대, 농가 단위 소득 안정 방안 마련 등 저수입 농가의 경영 안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업소득이 취약한 상황에서 저수입 농가의 소득은 이전소득과 농외소득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확대 등 농외 소득원 창출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함.

고수입 농가(H)의 수입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촌형 일자리 정책과 농업경영안정 지원 등 양방향 관리 필요

- 고수입 농가(H)의 주 수입원은 농업수입이지만, 농외수입도 저수입 농가(L)보다 5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임. 농외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농업수입의 크기로 고수입 농가의 흑자·적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비 절감 등 경영안정정책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함.

KREI 현안분석

감 수	국승용 선임연구위원	061-820-2275	gouksy@krei.re.kr
내 용 문 의	유찬희 연구위원	061-820-2022	chrhew@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69호

2018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총수입과 농가경제잉여 분석 중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9.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